

# 강진군 축제 이벤트, 지역경제 활력소 기대감

## 병영성·벚꽃축제 기간 진행 방문객 참여 전통시장 활성화

강진군이 전라병영성축제와 금곡사벚꽃 삼십리길 축제를 연계해 축제장에서 손목띠를 받아 오감통에 방문시 강진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군은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을 읍 전통시장으로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전라병영성 축제'와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와 연계해 '강진사랑상품권' 이벤트를 추진

한다. 축제장 방문객은 누구나 손목띠를 받을 수 있으며 손목띠를 강진읍 오감통 읍약장작소 광장에서 돌리판 이벤트 운영진에게 보여주면 최소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에서 1만원, 골드바 응모권까지 경품으로 걸린 '짱 없는 돌리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병영성과 금곡사 벚꽃길 등 봄 축제장에서는 손목띠 배부와 함께 특산물 홍보, 풍선 배부 등 이벤트가 진행되며 읍내 오감통 잔디광장에서는 자전거 솜사탕 체험, 정자 낚시, 호패·솜대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강진읍시장에서 5만원 이상 물품 구매

자에게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해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읍시장 종합동 내 접수처에서 구매한 카드·현금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제로페이 사용 내역을 제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축제인 강진청자축제 성공비결은 상품권 지원을 계승해 봄축제 히트작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방문객들을 읍시장으로 유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전라병영성축제'는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원 일원에서 조선 주막, 조선 의복 체험, 병영 난장 운영 등 조선시대 분위기로 꾸며진다.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놀이와 수문장 교대식, 줄타기, 무예 공연 등과 함께 하별 기념관까지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는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삼십리 벚꽃길로 야간 경관 조명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강진청자축제 이어 모든 축제에 연중 10%를 할인하는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성공 축제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영암군, 상호증공업서

영암군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보건소 금연실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의 금연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현대상호증공업에서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참가자들은 금연상담사의 관리·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간 진행되는 금연 펀드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금연 펀드는 개인 3만원, 사업장 2만원, 군지원 5만원 등 1인당 10만원으로 3개월/6개월 단위 점검을 통해 최종(6개월) 금연 성공자 수에 따라 1/N 분할 지급하게 되며 사업장 내 금연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 접수 무안군, 일손부족 해소 기대

무안군(군수 김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8월 이후 신청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계절근로자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C-4 비자), 5개월(E-8 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수와 기간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2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무안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에는 업무협약(MOU)을 2~3개 이상 체결,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진행 해남군, 31일까지 신청

해남군은 올해 6700만원을 들여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승마 170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14명, 재활승마 20명 등 해남군 내 초·중·고등학생 204명이다.

승마 체험일수는 1인당 10회이며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이다.

체험비는 일반승마 32만원(자부담 9만6000원)이며 사회공익승마체험(생활 32만원·재활 42만원)은 전액 무료다.

일반승마체험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사회공익 승마 체험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학생 중 소속 학교 추천을 받으면 참여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체험기간은 4~11월까지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봄꽃심기 체험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9일 새하얀 어린이집 원아 50명을 대상으로 봄꽃심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은 기술센터 육묘장에서 팬지와 시험 재배중인 딸기, 모란, 작약, 망고 등 작물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자연을 체험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제공

## 목포시, 9월 14~17일 목포문학박람회 연다

### 청년·신진작가 주테마 운영

목포시가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전국 최초의 문학을 테마로 한 문학박람회 개최 시기를 오는 9월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를 오는 9월14~17일 목포문화관 일대, 원도심 등 목포시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목포문학박람회는 문학을 테마로 한 전시, 행사,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목포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진섭, 황현산, 최인훈 등 문학 큰 업

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 지난 2021년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박람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13만명이 다녀가면서 문학의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문학의 도시 목포라는 브랜드를 확보하는 등 목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두번째를 맞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민선 8기 청년이 찾는 목포시정 방향에 맞춰 청년·신진작가를 주테마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립서점·출판협회·문학창업 등 문학산업과 연계하고 전국 단위 대규모 문학대회 개최, 목포문학관

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학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학과 목포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목포문학관광상품과 MZ세대·가족단위·학생 등을 주타겟으로 한 디지털 문학콘텐츠, 나만의 책방 만들기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3월 중 자문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박람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학박람회가 국내 최대 문학행사, 문학플랫폼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안군, 선도서 '우리의 봄-섬 수선화 축제' 연다

### 30일부터 4월9일까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30일부터 4월9일까지 지도읍 선도에서 '우리의 봄-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7km에 이르는 수선화 재배단지 관광로를 따라 13ha의 면적에 178만구 수선

화가 식재돼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관광로 외 수선화 정원과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쉼터를 설치, 상춘객들에게 힐링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로 선도 일주, 1년 뒤 받아보는 느낌보 우체통, 세상에 하나뿐인 꽃팔찌 만들기, 꽃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과 수

선화꽃 화회전, 선도 사진전이 쉼터와 전시 부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선화축제추진위원회는 관광객들에게 수선화를 모티브로한 굿즈 상품과 화분도 판매할 계획이다.

선도로 가는 길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며 압해읍 가룡선착장에서 차도선으로 50분 소요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진도군, 주민체감도 등 평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주민 체감도,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진도군은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과 직결된 집집마다 행정서비스 배달, 가상현실 치매케어 서비스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 하는 시책 추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도=백재현 기자

## 의용소방대 산불감시단 운영 진도소방서, 344명 참여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봄철 산불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진도군 의용소방대 산불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남 각지에서 산림·임야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발령되었다. 화재 주요원인은 쓰레기 소각, 논·밭 소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소방서는 봄철 농작물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 및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진도군 의용소방대 15개대 344명이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산불감시단을 운영한다.

의용소방대 산불감시단은 산림 인접 마을과 지역을 순찰하며 논·밭두렁 소각활동을 주로 관리하고 주요 등산로에서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등 부주의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관심과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